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350

**Updated May 18,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 Demolition Sales Report	
Key Indicators	17
Issue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탈석탄·재생 E 공급에 허덕이는 발전 공기업...두 달 새 총 9000 억 빚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이 탈석탄의 직격탄을 맞고 허덕이고 있다. 이 공기업들은 최근 두 달 새 회사채 발행 방식으로 총 9000억원의 빚을 내 태양광사업 및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입 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석탄에 따른 발전기 가동률 하락, 전기요금 규제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등 지출 부담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탈석탄으로 지난달 전체 용량 정산금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용량정산금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실제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발전사의 석탄발전기 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또 올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전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연초 올해 1조원대의 적자를 예상한 발전 공기업들로선 최근 일제히 신입 사장을 맞이했지만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사는 지난달과 이번달 초 총 9100억원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남부, 남동, 중부발전은 전임 사장 재직 기간에, 동서와 서부 발전은 신입 사장 취임 이후 발행했다.

무보증사채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다. 공기업인 만큼 신용도는 5개사 모두 AAA 등급으로 높다. 5개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주요 사용처는 대부분 만기가 도래한 채무상환이다.

남부발전은 2200억원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해 BNK 투자증권, SK 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이번달 만기인 전단채를 상환했다. 남동발전은 1900억원을 발행해 1200억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했으며, 700억원은 올해 REC 물량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 I. NEWS

동서발전은 800억원을 발행해 한국전력기술에 투자비 명목으로 800억원을 지급했다. 서부발전은 2300억원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해 오는 7월 만기인 10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했고,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비로 700억원, 두산퓨얼셀에 태양광·연료전지사업비 명목으로 600억원을 납부했다.

### 모회사 한전은 작년 이어 올 1분기도 흑자...자회사는 올해도 암울

모회사인 한전이 지난 1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결과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하락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1분기 발전자회사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7억원 감소했으며, 자회사 연료비는 유가·석탄가 하락, 상한 제약에 따른 화력 발전의 석탄이용률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해 전년 동기 대비 1921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발전자회사들은 올해도 총 1조 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한 바 있다. 연료비연동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원년인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된데다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비롯한 탈(脫)석탄 가속화로 전력 판매수익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부발전 27억원, 남부발전 74억원, 동서발전 442억원, 서부발전은 1090억원, 남동발전 1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급락한데다 불경기로 전력판매량까지 감소한 영향이다. 매출액도 중부발전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적게는 100억원, 많게는 1000억원 넘게 줄었다. 송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모회사 한전이 지난해 2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발전 공기업들은 '전력시장 개편 및 수익성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전력 그룹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하는 복합발전기에 대한 보상 체계 현실화와 석탄용량요금 개선, 연료비 원가 및 정비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탈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발전 공기업들이 석탄발전소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 . NEWS

### 2. 부산항만공사, 항만 공기업 최초 ESG 경영전략 선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10 일, BPA 본사(부산 중양동)에서 항만 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섰다.

BPA 가 ESG 경영에 나선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산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항만 경영에 도입해 항만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부산항을 통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를 위해 BPA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구현(E)',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S)', '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G)'이라는 ESG 경영의 3 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항만 미세먼지 감축, 소통·협업 기반 지역사회 가치 증진, 윤리경영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 등 9 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ESG 경영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추진단을 구성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ESG 위원회 분과를 신설해 ESG 경영 전반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내실있는 ESG 경영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BPA 뉴딜 종합계획을 ESG 경영 계획에 반영시키고 부산항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기찬 사장은 "BPA 가 부산항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와 항만이 상생협력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3. '코로나 충격' 벗어난 국내 정유 4 사, 실적 탄탄대로 달릴까

국내 정유사들이 서서히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당분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 I. NEWS

---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올 1분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 시차 효과와 비정유 부문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정유(석유) 1조 4000억원, 석유화학 3000억원, 윤활기유 6000억원 등 약 2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유 4사는 지난해엔 유가 급락과 정제마진 부진으로 인해 연결 기준 약 5조 2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올 1분기 정유 부문의 이익 확대는 유가 상승 덕분이다. 올 1분기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60% 정도가 유가 상승 관련 재고 이익에 따른 영향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비정유 부문의 실적 호조,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올 2분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익창출 기초가 예상된다"며 "다만 유가 상승 효과가 지속되긴 어려워 1분기에 비해선 이익 창출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신용평가는 정유사들의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영업실적 개선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지출, 기존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한국신용평가는 "단기간 내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추가적인 외부차입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배터리·화학 등 사업 관련 투자자금 지출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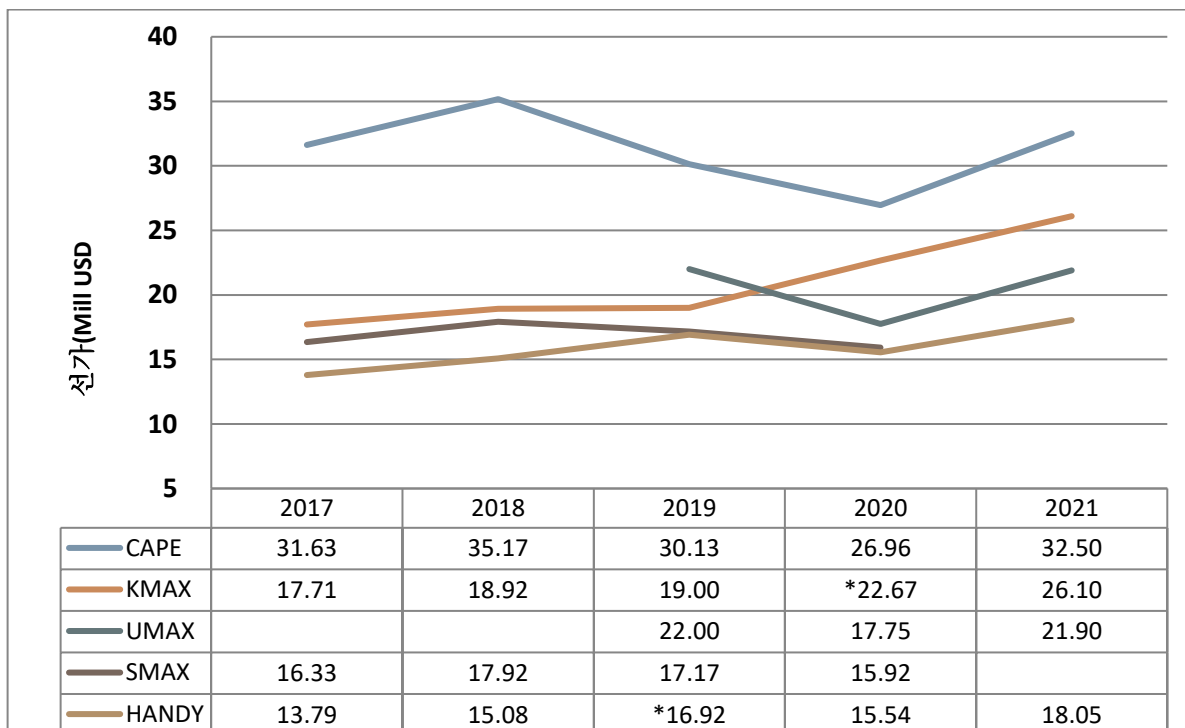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32.50
	31.43%	11.20%	-14.34%	-10.51%	20.56%
Kamsarmax (82K) (*19 년까지는 76K 기준)	17.71	18.92	19.00	*22.67	26.10
	29.57%	6.82%	0.42%	19.30%	15.15%
Ultramax (60-61K) (19 년부터)	--	--	22.00	17.75	21.90
	--	--	--	-19.32%	23.38%
Supramax (58K) (20 년까지)	16.33	17.92	17.17	15.92	--
	25.44%	9.69%	-4.20%	-7.28%	--
Handysize (37K) (*18 년까지는 32K 기준)	13.79	15.08	*16.92	15.54	18.05
	38.78%	9.37%	12.18%	-8.13%	16.14%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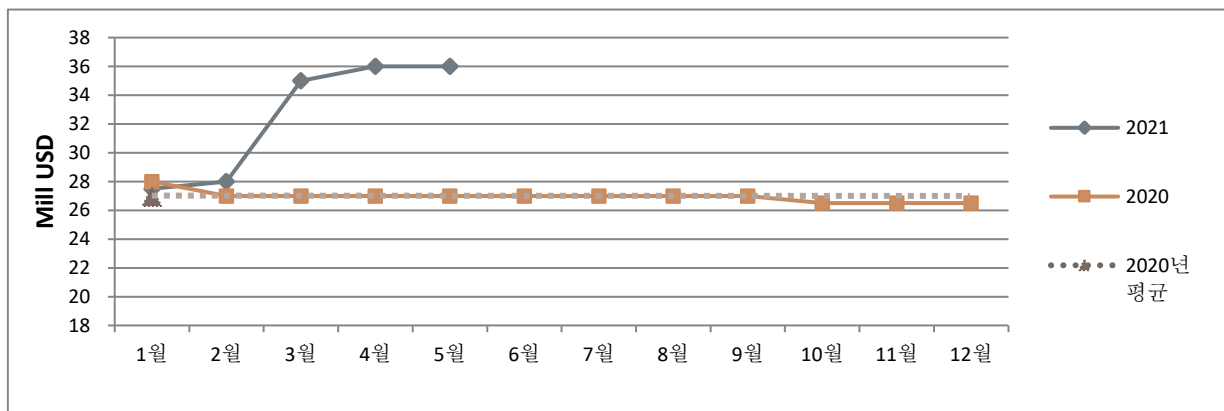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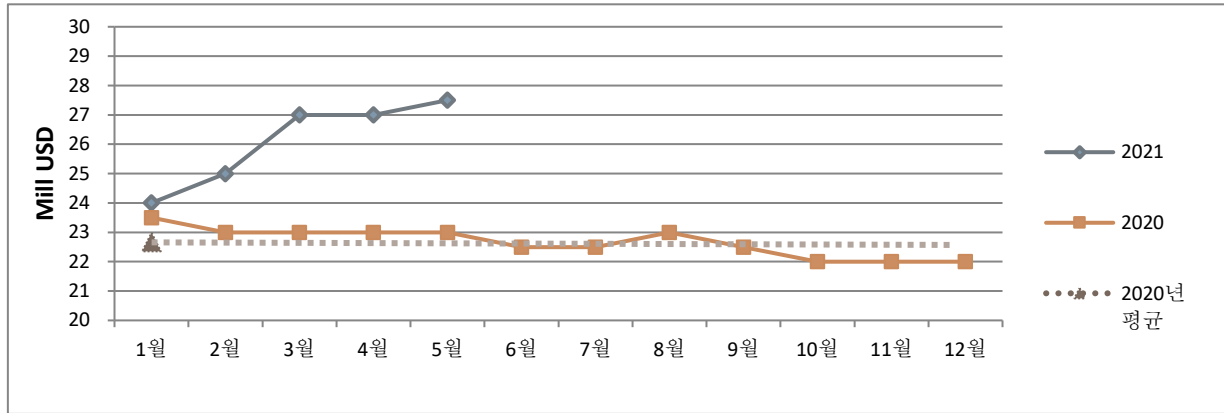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CAPE (180K)	선가	27.50	28.00	35.00	36.00	36.00		32.50
		전월대비	3.8%	1.8%	25.0%	2.9%	0.0%		-
		전년대비	-1.8%	3.7%	29.6%	33.3%	33.3%		20.6%
	KMAX (82K)	선가	24.00	25.00	27.00	27.00	27.50		26.10
		전월대비	9.1%	4.2%	8.0%	0.0%	1.9%		-
		전년대비	2.1%	8.7%	17.4%	17.4%	19.6%		15.1%
	UMAX (60-61K)	선가	20.00	20.50	22.50	22.50	24.00		21.90
		전월대비	12.7%	2.5%	9.8%	0.0%	6.7%		-
		전년대비	--	--	--	--	--		-
HANDY (37K)	선가	14.75	16.25	19.25	20.00	20.00		18.05	
	전월대비	0.0%	10.2%	18.5%	3.9%	0.0%		-	
	전년대비	-13.2%	-4.4%	13.2%	17.6%	29.0%		16.1%	
2020	CAPE (180K)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96	
	KMAX (82K)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67	
	SMAX (58K)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54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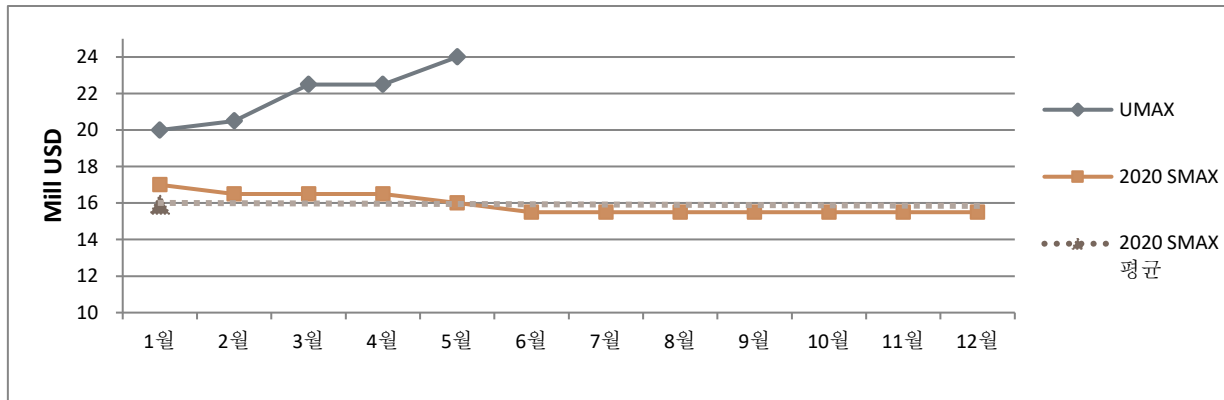


##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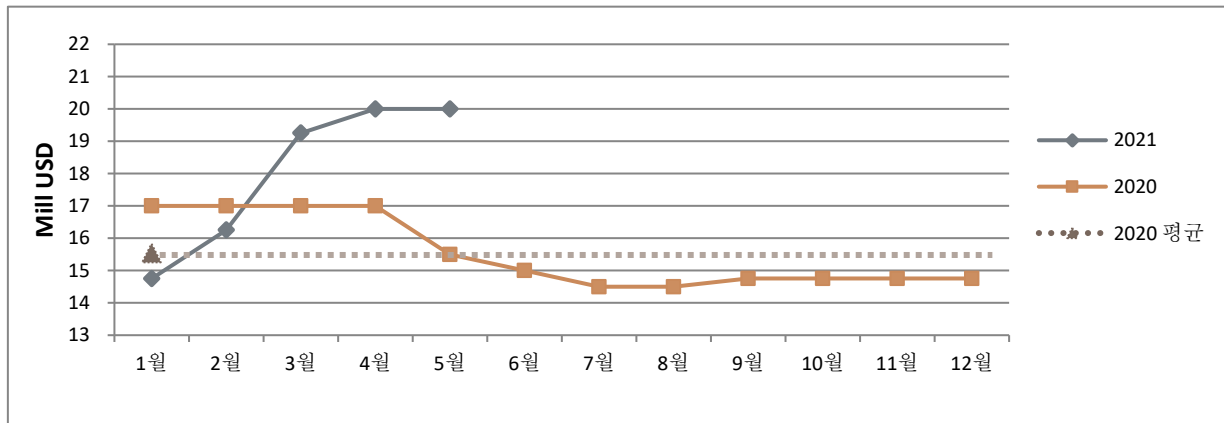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TIGER SHANDONG	180,091	2011	CHINA	B&W		24.45	Undisclosed buyer, Auction sale
BC	SPRING AEOLIAN	83,500	2012	JAPAN	B&W		21.30	Greek buyer (Costamare)
BC	PEDHOULAS FARMER	82,300	2007	JAPAN	B&W		22	Greek buyer (Costamare), scrubber fitted
BC	TANGERINE ISLAND	82,265	2013	JAPAN	B&W		20.80-20.90	Greek buyer (Newport), waiving inspection
BC	PEDHOULAS FIGHTER	81,541	2012	CHINA	B&W		22.50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BC	PEDHOULAS BUILDER	81,541	2012	CHINA	B&W		22	Greek buyer (Costamare), scrubber fitted
BC	COUNTESS I	79,235	2013	CHINA	B&W		18.85	Chinese buyer
BC	WISDOM DIVA	76,606	2009	JAPAN	B&W		17	Greek buyer (Apollonia Lines)
BC	NORD HUDSON	61,617	2014	CHINA	B&W	C 4x30t	20	Undisclosed buyer
BC	PACIFIC HERO	58,000	2012	JAPAN	B&W	C 4x30.5t	18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BC	OLYMPIC	57,045	2011	CHINA	B&W	C 4x30t	14.50	Chinese buyer
BC	LEGACY	57,045	2011	CHINA	B&W	C 4x30t	13.50	Chinese buyer
BC	INDIGO TRAVELLER	55,596	2011	JAPAN	B&W	C 4x30t	15.80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BC	GREAT LEGEND	52,424	2006	CHINA	B&W	C 4x30t	11	Undisclosed buyer
BC	GREAT REWARD	52,385	2006	CHINA	B&W	C 4x30t	11	Undisclosed buyer
BC	CS DREAM	50,800	2010	JAPAN	B&W	C 4x30.5t	13.80	Undisclosed buyer
BC	XING ZUN HAI	38,947	2015	CHINA	B&W	C 4x30.5t	64-4EB	Undisclosed buyer
BC	XING RONG HAI	38,904	2015	CHINA	B&W	C 4x30.5t		
BC	XING YI HAI	38,898	2016	CHINA	B&W	C 4x30.5t		
BC	XING RU HAI	38,858	2016	CHINA	B&W	C 4x30.5t		
BC	NORDUBICON	37,985	2016	CHINA	B&W	C 4x30t	18.28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 II . BULK CARRIER

BC	NORDCOLORADO	37,976	2016	CHINA	B&W	C 4x30t	18.50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BC	ULTRA CALBUCO	37,981	2017	JAPAN	B&W	C 4x30.7t	45-2EB	Undisclosed buyer
BC	ULTRA OSORNO	37,883	2017	JAPAN	B&W	C 4x30.7t		
BC	LADY C	32,790	2011	CHINA	B&W	C 4x30.5t	9.50	Chinese buyer
BC	BASIC RAINBOW	28,468	2011	JAPAN	B&W	C 4x30t	14.40- 14.70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BC	LEAP HEART	28,383	2012	JAPAN	B&W	C 4x30.5t	10	HK based buyer (Taylor Maritime)
BC	LOVELAND ISLAND	28,316	2010	JAPAN	B&W	C 4x30.5t	8.50-9.25	Undisclosed buyer
BC	CRYSTAL ISLAND	28,228	2011	JAPAN	B&W	C 4x30.5t	9.50	Greek buyer
BC	BEAGLE VII	16,822	2007	JAPAN	B&W	C 3x30.7t	5.8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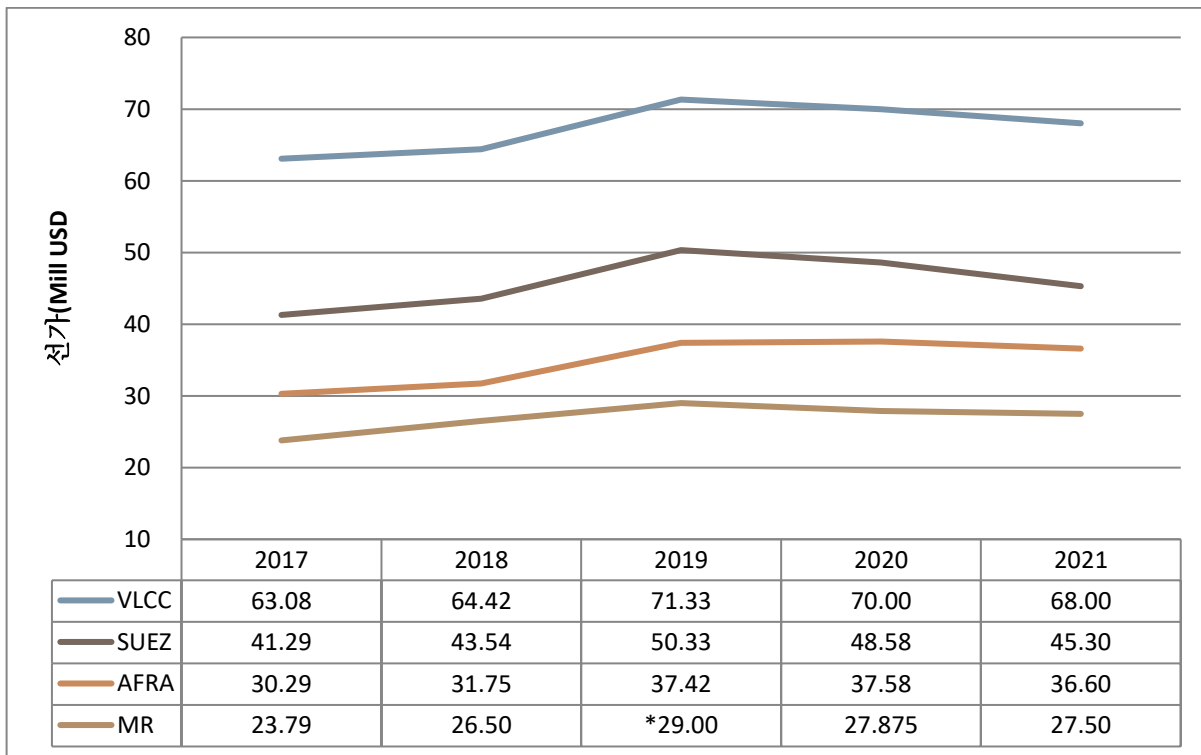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8.00
	-6.89%	2.11%	10.73%	-1.87%	-2.86%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5.30
	-15.15%	5.45%	15.60%	-3.48%	-6.76%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6.60
	-15.66%	4.81%	17.85%	0.45%	-2.62%
MR (51K) *18년까지는 49K 기준	23.79	26.50	*29.00	27.875	27.50
	-4.19%	11.38%	9.43%	-3.88%	-1.35%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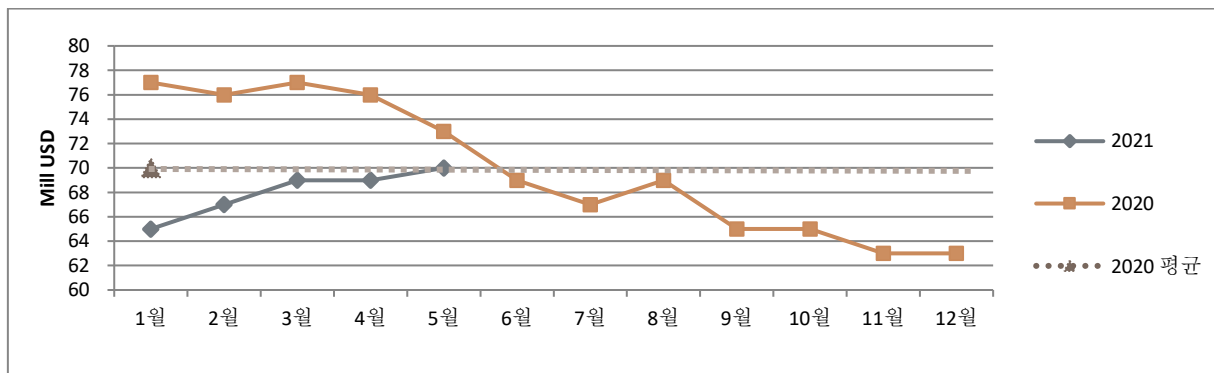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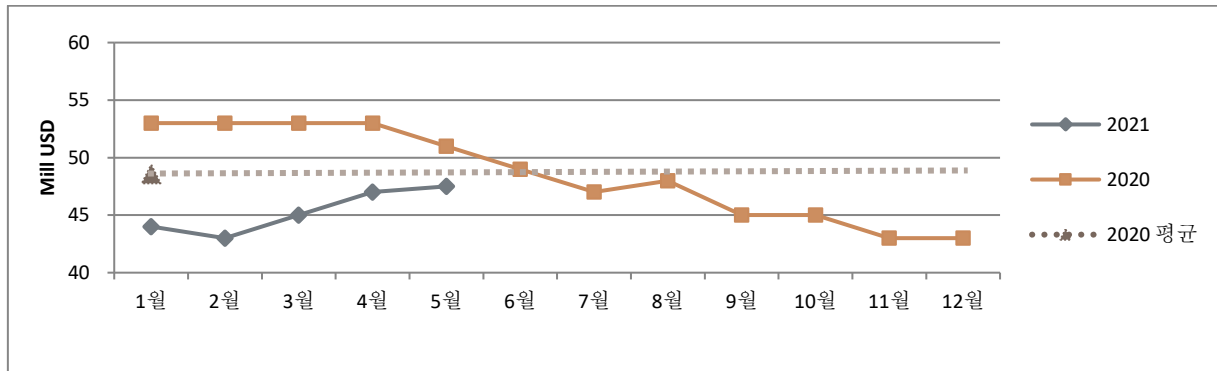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1	VLCC 310K	선가	65.00	67.00	69.00	69.00	70.00		68.00
		전월대비	3.2%	3.1%	3.0%	0.0%	1.4%		-
		전년대비	-15.6%	-11.8%	-10.4%	-9.2%	-4.1%		-2.9%
	SUEZ 160K	선가	44.00	43.00	45.00	47.00	47.50		45.30
		전월대비	2.3%	-2.3%	4.7%	4.4%	1.1%		-
		전년대비	-17.0%	-18.9%	-15.1%	-11.3%	-6.9%		-6.8%
	AFRA 105K	선가	33.00	33.00	37.00	40.00	40.00		36.60
		전월대비	1.5%	0.0%	12.1%	8.1%	0.0%		-
		전년대비	-19.5%	-22.4%	-12.9%	-5.9%	0.0%		-2.6%
	MR 51K	선가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전월대비	5.8%	0.0%	0.0%	0.0%	0.0%		-
		전년대비	-8.3%	-11.3%	-11.3%	-8.3%	-1.8%		-1.3%
2020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8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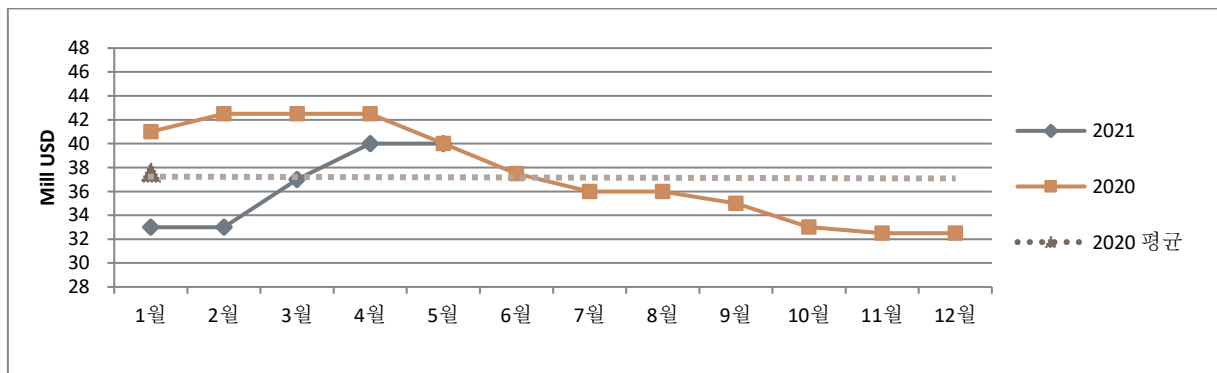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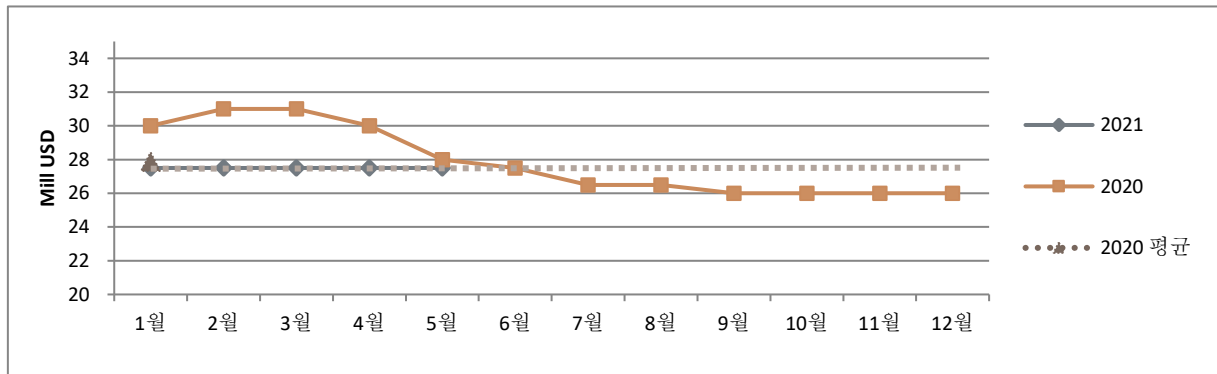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TARLIGHT VENTURE	318,285	2004	KOREA	B&W		30.60	Middle Eastern buyer
TANKER	NEW CENTURY	299,031	2004	JAPAN	B&W		31.00	Undisclosed buyer
TANKER	HUDSON	297,638	2017	PHILIPPINES	B&W		70.50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SMITI	281,396	2005	JAPAN	SULZ		31.50	Chinese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SILIA T	164,286	2002	KOREA	B&W		15.80	Undisclosed buyer
TANKER	SCF URAL	159,314	2002	KOREA	B&W		16.00	Greek buyer (Edge Maritime)
TANKER	SCF CAUCASUS	159,173	2002	KOREA	B&W		16.00	
TANKER	FILIKON	149,989	2002	JAPAN	SULZ		16.50	Chinese buyer
TANKER	NISSOS SCHINOUSSA	114,400	2015	KOREA	WART		40.25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NISSOS HERACLEA	114,300	2015	KOREA	WART		40.25	
TANKER	NISSOS THERASSIA	114,300	2015	KOREA	WART		40.25	
TANKER	OCEAN CROWN	108,900	2007	CHINA	B&W		15.30	Vietnamese buyer
OIL/CHEM	INTEGRITY	46,803	2004	KOREA	B&W	3	9.00	Chinese buyer, Epoxy coated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HANSA AMERICA	47,072	2014	CHINA	B&W	3635	TEU	30	Danish buyer
CONT	HSL AQUA	15,100	2009	JAPAN	B&W	1060	TEU	9	Japanese buyer (StarOcean Ma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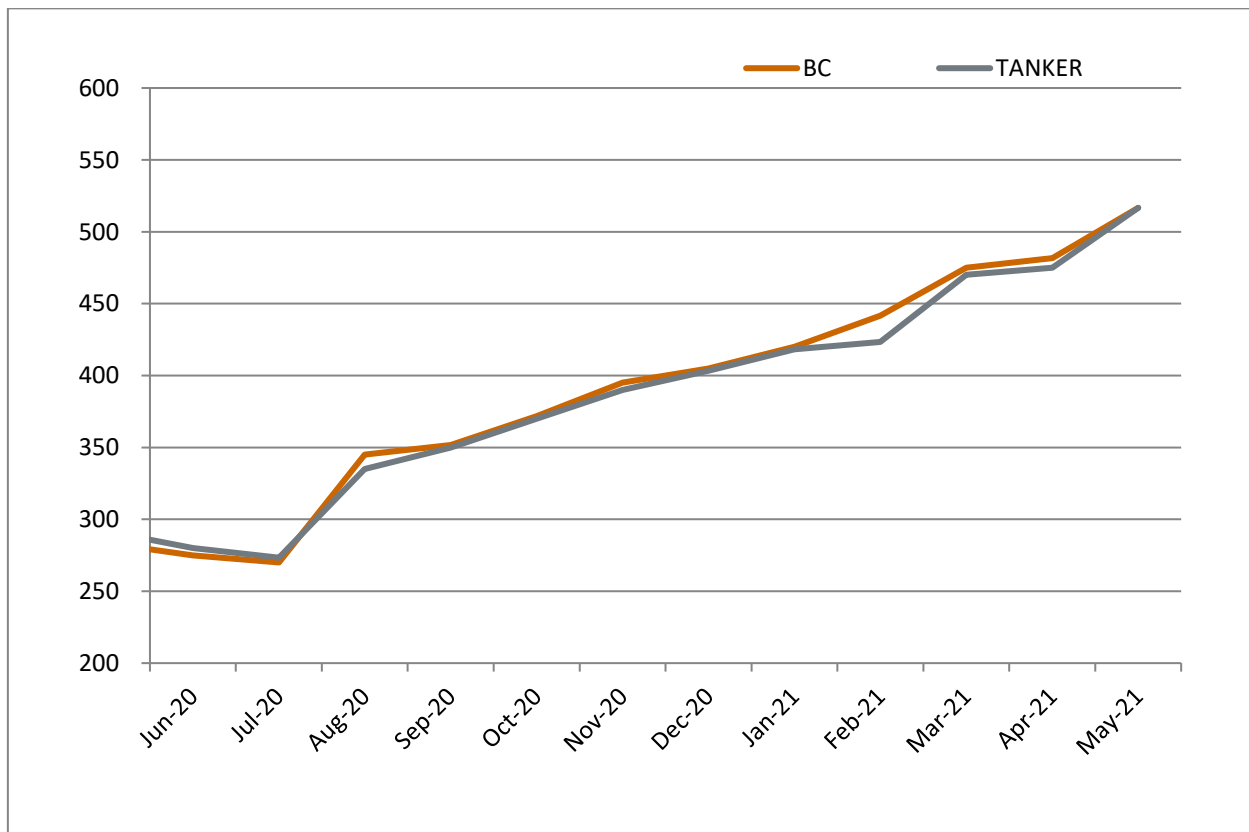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19 평균		2020 평균		2021 평균		2020년 5월		2021년 5월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USD/LDT	USD/LDT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96.39	-8.4%	344.44	-13.1%	460.67	33.7%	291.67	516.67	8.8%	77.1%
BC	398.75	-9.5%	344.58	-13.6%	467.00	35.5%	283.33	516.67	7.3%	82.4%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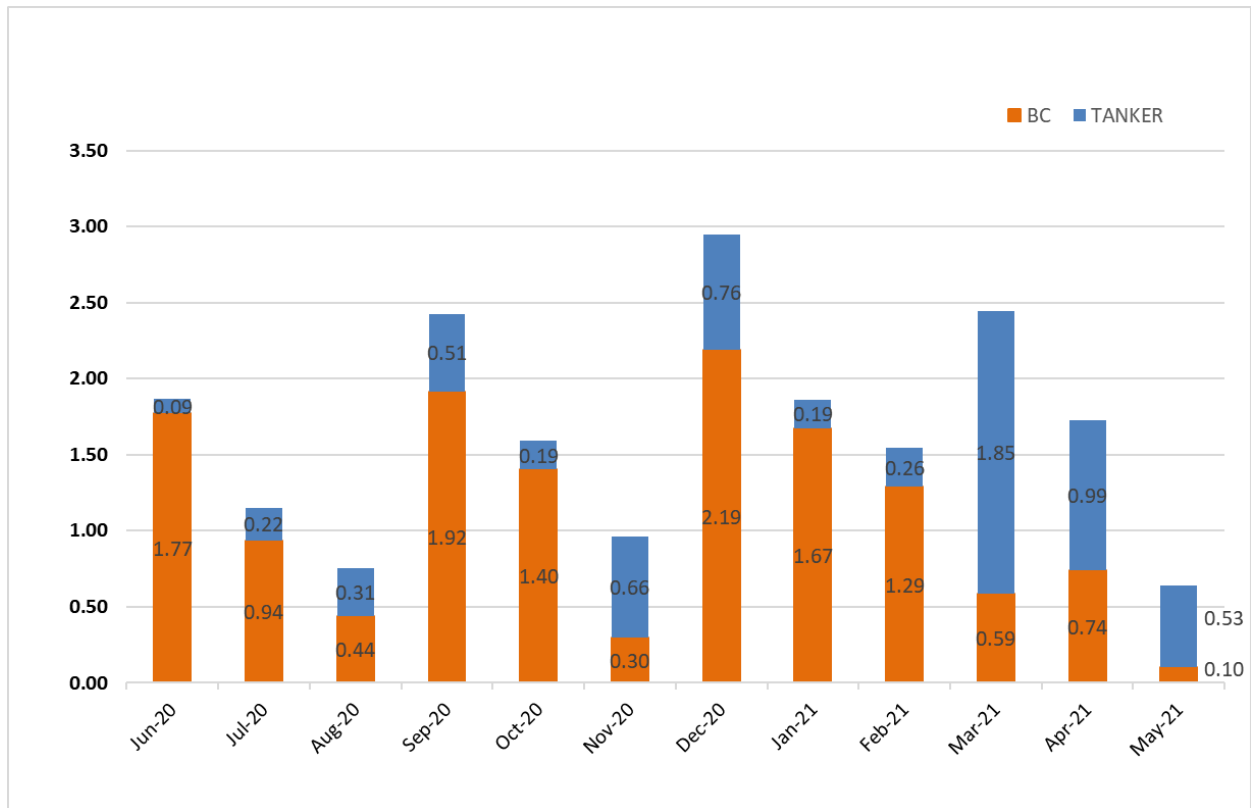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20 년 5 월		2021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68	104.2%	112	115.5%	0.02	2	0.53	2,801.2%	13	550.0%
BC	7.45	116	15.61	209.7%	164	141.4%	1.33	10	0.10	-92.1%	5	-50.0%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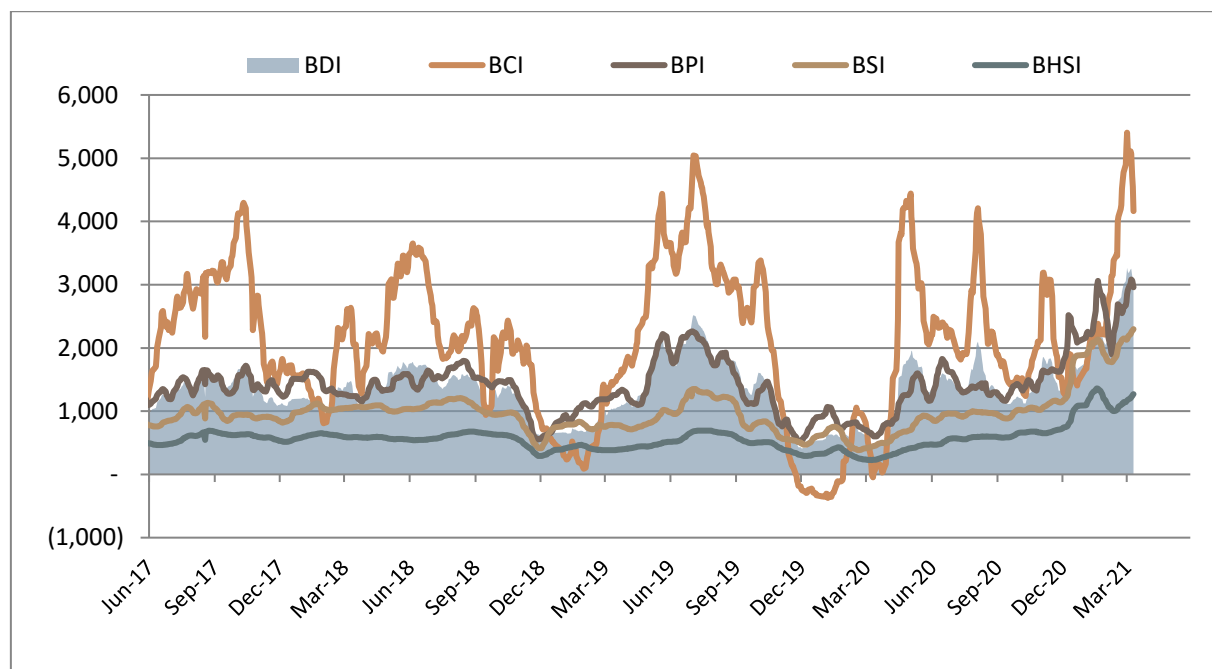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td)	REMARKS
TANKER	AZOV SEA	47,431	9,641	1998	CROATIA	B&W	535	INDIA
TANKER	PALMYRA (TOTEEL)	5,428	1,944	1991	JAPAN	HANSH	485	PAKISTAN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1-05-14	2021-05-07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BDI</b>	2,939	3,183	▼-244.00	3,266	393
<b>BCI</b>	4,165	5,006	▼-841.00	5,404	-372
<b>BPI</b>	2,961	2,955	▲6.00	3,082	520
<b>BSI</b>	2,297	2,196	▲101.00	2,297	383
<b>BHSI</b>	1,269	1,189	▲80.00	1,360	228





## V.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IFO380	496.50	▼4.50	488.50	▼5.50	496.00	▲6.50
MGO	558.00	▲1.50	551.00	▼2.00	595.00	▲14.50
LSMGO	555.00	▲4.00	546.00	▲9.00	-	-
VLSFO	386.00	▼7.00	381.50	▼8.50	386.00	▼3.00

❖기준일 : 5 월 14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1-05-14	2021-05-07	CHANGE
미국 달러	1130.60	1125.50	▲5.10
일본 엔(100)	1032.75	1032.05	▲0.70
유로	1365.60	1357.63	▲7.97
중국 위안	175.21	173.61	▲1.60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 [시사상식] 바퀴벌레 이론

표면으로 드러난 하나의 악재 뒤에는 더 심각한 악재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로 증권가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기업의 부진한 실적, 오너의 무능 등의 바퀴벌레가 결국에는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뜻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관련기사] 아케고스 마진콜보다 무서운 '바퀴벌레 이론'

주식투자 역사상 개인을 상대로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헤지펀드가 연초 게임스톱발(發) 공매도 전쟁에서 참패한 데 이어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가 마진콜을 당하는 수모까지 발생했다. 빌 황이 운영하는 아케고스 사태를 계기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헤지펀드 위기설'이 다시 나돌고 있다.

헤지펀드란 대체로 100명 미만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 등 조세회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다.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으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1990년 이후 유럽 통화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LTCM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아케고스 사태에서 재확인됐듯이 헤지펀드가 투자 원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면 투자자로부터 '마진콜'을 당한다. 같은 이름의 영화로 우리에게 '도덕적 해이의 극치' 정도로만 알려진 마진콜은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증거금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하라는 요구로, 응하지 않을 경우 펀드런에 직면한다.

헤지펀드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신뢰 유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개인 고객 비중이 높아진 최근과 같은 여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투자 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헤지펀드는 마진콜에 반드시 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디레버리지로 연결되거나 상황이 긴박해 금융위기로 전이될 움직임을 보이면 중앙은행이 나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디레버리지란 마진콜을 당했을 때 헤지펀드가 증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인민은행의 테이퍼링과 맞물릴 경우 신용경색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증시에 비관론이 순식간에 덮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 대상으로 택한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라 통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한다. 헤지펀드 위기설이 나돌 때마다 선진국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가도 신흥국에서 엄청난 파장이 몰고 오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금융당국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아케고스로만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한동안 나돌았던 '바퀴벌레 이론(COCKROACH THEORY)'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이론은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바퀴벌레는 벽이나 바닥에 숨어있는 때의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주축이 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을 보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케고스 사태의 핵심인 차액거래결제(CFD)와 관련된 레버리지 규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인 '볼커룰'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주에 열릴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를 앞두고 IMF 총재가 우려한 것처럼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염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진단지표와 함께 최근에는 금융 시스템의 완충 능력을 알 수 있는 금융스트레스 지수가 활용된다.

두 지표로 한국을 진단해 보면 아케고스발 헤지펀드 위기설이 나돌기 시작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나 중장기 투자자금의 회수로 악화되면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게 나온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 정도가 심한 가운데 유입 외자의 건전도가 악화되고 금융스트레스 지수가 오르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결국 최근 '아케고스 마진콜발 헤지펀드 위기설'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이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그림자 금융 파약, CFD 제한, 조기경보체제 가동 등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때다.

[출처: 한경닷컴 한상춘 기자]

## VI. ISSUE & CONTACT INFORMATION

###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 SHIP SALE & PURCHASE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

#### | CHARTERING |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

#### | RESEARCH |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박영단 과장 Tel. 070-7771-6407)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